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4호
5월 27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정기총회 개최

교회본질회복 바른 복음전파, 종교다원주의·차별금지법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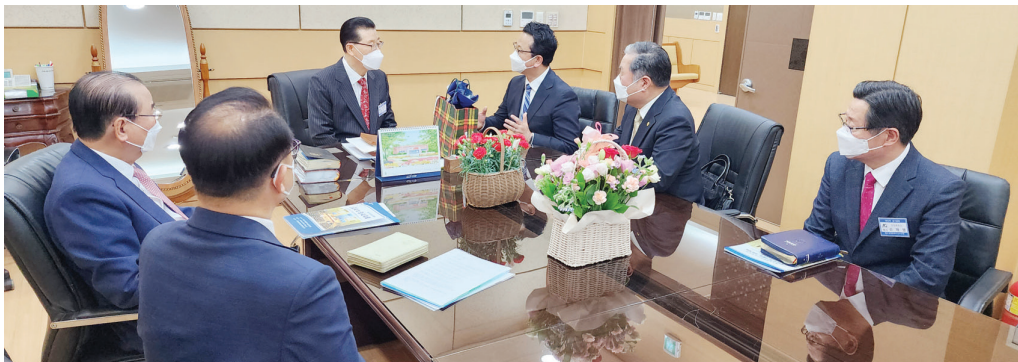


총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5일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창 13:20-23)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 안보와 핵폐기 평화정착, 감염병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교회를 인본주의



일본하나님의성회 이사장(총회장) 츠치야키오시 목사와 한일 간선교 확산 논의.

적인 종교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되게 하려고 우는 사자 같이 날 뿜는다"고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서 항상 각성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단,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을 강조했다.

전임 정기복지회장장 한승수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재무 백영자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기단의 찬양,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고전 4:6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여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한정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의 법칙이며 죄 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자신이 종교다원주의 단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며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통탄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탄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우상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

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증하게 여기겠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만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밖에 있을 수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치 않으신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 것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신재영 목사(전임 총회장), 이득상 목사(김포지방회장)가 각각 주례 기도문을 인도했다.



일본하나님의성회 이사장(총회장) 츠치야키오시 목사와 본교단 임원진이 함께.

이어 일본 하나님의성회 이사장 츠치야키오시 목사의 축사가 일본 하나님의성회 니시노미야이교회교회 강일성 목사의 통역으로 있었으며 츠치야키오시 목사는 축사를 통해 "귀한 정기총회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일본교회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성령 안에 하나, 신앙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예하성교단의 72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교단의 전진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30년 근속자

10명(김기진, 정진균, 최형택, 유영주, 심해원, 정기영, 유병일, 이동수, 최창수, 김영환)에 대한 근속패를 증정했다.

이어 교단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헌금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기단의 헌금송, 교단 서기 이형순 목사의 광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총회는 지난해 10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이후 6개월여 만에 5월 총회로 자리를 되찾은 만큼 임원선출 없는 사무총회로 열렸다.

회무처리는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한 인준, 감사위원회, 예산위원회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72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72차 교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 사이버에 대한 불감증을 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감염병 유행 후 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해, WCC·WEA 종교다원주의 반대,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동성결혼 반대, 감염병에 대한 바른 대처, 집요하게 한국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제72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일본하나님의성회 이사장(총회장) 츠치야키오시 목사의 축사. 왼쪽은통역 강일성 목사.

편지운 목사 · 손현호 목사 목사임직

은진지방회

은진지방회(회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5월 15일(월) 오후 4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 성전에서 2023년 목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목회자의 직분을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당을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2023년 목사 임직예배 드려

이날 총회에서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한 인준이 완료된 후 바로 드려진 임직예배는 은진지방회 총무 이도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최우현 목사의 기도, 서기 김영식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호 목사는 행 20:24 말씀을 본문으로 로한 설교를 통해 "지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진 서약 및 공포 시간에는 지방회장 이석호 목사의 집례로 편지운 전도사와 손현호 전도사에 대한 서약, 안수위원(이석호 목사, 최우현 목사, 이도휘 목사, 이재항 목사, 윤형권 목사, 김영식 목사)의 안수, 목사가운 착용, 안수위원의 악수례, 지방회장 이석호 목사의 공포 임직증서 및 패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직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2023년 목사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충남 기독인의 날’ 개최 결속 다져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평안과 형통 위해 기도

2023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중우 목사, 충남기총)는 ‘충남 기독인의 날’을 개최하고 결속과 친교를 다졌다. 충남기총은 지난 5월 11일(목) 공주 공너루에서 ‘봄 햇살아래 함께 우리’라는 주제로 ‘충남 기독인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보물찾기, 음악회 등이 진행되며 모처럼 파스한 봄별에서 회원간 친교와 목회 생활의 여유를 갖게 했다.

이날 김중우 총회장은 개회사에서 “충청남도 15개시·군 3500여 교회와 70만 성도의 평안과 형통,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며 “푸른 초장과 실린한 물기를 찾아 공주의 천년 솔밭에서 행복한 나눔의 잔치로 모여 한 마음 되어 주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하만사성”을 이루어 가면서 창 1:28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충남기총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며 “더 나아가 ‘정복하라, 다스



리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종은 군사가 되어지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개회예배는 김정태 목사(자기부총회장)의 인도로, 나광진 목사(영주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김한덕 목사(논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진국 목사(홍성기독교연합회 총무)가 성경봉독했으며, 배광식 목사(합동 106회기 총회장, 울산대안교회)가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오래 앞둔 자가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며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서 민족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우는 자가 되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설교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김봉준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박종운 목사(충청북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나서, 행사의 개최와 충남기총을 향해 축복을 전했다.

‘회복에서 다시 한국교회 부흥으로’

제24차 신바람목회세미나 열려



비전교회와함께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제24차 신바람목회 세미나를 지난 5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양교회(담임 최상훈 목사)에서 ‘회복에서 다시 부흥으로’란 주제로 열었다.

사무총장 원종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무 이광호 목사의 기도와 화양교회 담임 최상훈 목사의 ‘선포의 능력으로 부흥의 시대를 열라’는 제하의 설교, 고분 김동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상훈 목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실생활이며, 교제이고 기도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눴다. 이어 기감 선교교 총무 태동과 목사가 침체한 한국교회에 영적 새바람을 일으켜 회복과 부흥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되고 있는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와 제85회 총회 감목 회의에서 결의된 ‘200만 전도운동’의 추진 배경과 목표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날 오후 세미나는 중부연회 인천동지부

석남은혜교회 류순규 목사가 ‘상당목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세우기’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이밖에도 ‘개혁교회 돌피이야기’를 전한 서울연회 성동광진지부 예임교회 광형식 목사는 △목회의 방향을 확실히 하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먼저 헌신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조건 전도하라 등 노하우를 공개했고, ‘알고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을 개혁교회 목회 이야기’를 펼친 경기연회 용인서지부 다윗목교회 양홍서 목사는 △선배와 반드시 만나라 △목회적 경험 △예언 세우기 △장소선택하기 △비품준비하기 △예배세우기 △중보지세우기 △말씀묵상 △전도 △목회계획세우기 등 개혁교회의 첫 출발부터 준비해야 할 다양한 부분에 세세하게 설명했다.

아동 주거권지지 캠페인 ‘Hi Five’ 전개

한국해비타트, 10일 자문단 발대식도 가져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5월 10일(수) 아동주거권지지 캠페인 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주거복지 NGO 한국해비타트가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를 시작한다.

‘Hi Five’는 5%인 주거빈곤아동 비율을 없애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주거빈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환경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동 인구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 7천 명(62%)에 달하고 있다. 2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주거여건에서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아동복지법에서조차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하이파이브)’를 시작하며 지난 10일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앞서 코로나19로 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던 2020년에도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3천여 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시즌2로 진행되는 ‘Hi Five’ 캠페인은 아동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 서명 참여자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릴레이 재능기부 활동 펼쳐

월드비전 스승의 날 행사로 봉사활동 진행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한화생명과 함께 릴레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릴레이 재능기부 활동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대면 봉사활동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릴레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화생명의 전문봉사단(플로리스트, 캘리그라피, 파티세, 한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사진/영상) 63명과 일반봉사단을 포함해 총 200명이 동참했다.

봉사단은 총 5개 프로그램과 스승의 날 행사로 나누어 지난 10일부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봉사팀은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세계시민 교육을 목표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비건 쿠키와 수제 간식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이 밖에도 해외 생리빈곤 아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월드비전 ‘베이지 포 걸스’

캠페인에 동참 및 탄소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천연 수세미 및 LED 무드등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전문봉사단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민들레학교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월드비전은 각각 캘리그라피와 플로리스트 전문봉사자와 아동을 1:1로 매칭시켜 카네이션 꽃 바구니와 응원 메시지가 담긴 텀블러를 제작하는 시간을 보냈다. 동시에 바리스타 전문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드립백을 교사들에게 선물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직접 꽃 바구니와 텀블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봉사단은 모든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전문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빛교회 후원 니카라과에 성경 기증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 스페인어 성경 40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지난 5월 4일(목) 바이블코리아(경기도 파주시)에서 빛교회(양태우 목사)의 후원으로 니카라과에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 ‘스페인어 성경’ 400부를 보내는 기증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증 행사에서 빛교회 양태우 목사는 “우리나라를 일으킨신 말씀을 통해 니카라과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중남미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남미 책임자인 마르코 마르티네즈는 영상 인사를 통해 “빛교회가 후원해 주신 성경을 통해 니카라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귀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공회 총무 호재민 목사는 “니카라과의 미스키토 부족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이 없다. 이러한 나라에 빛교회의 후원으로 성경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일여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해 본다.”라며 기대를 전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아이티에 이어 최빈국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돈벌이에 나서곤 한다. 특히 니카라과 북부의 큰 미스키토 부족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최빈층이다. 이들이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미스키토어 성경을 갖는 것이다. 니카라과에 전해지는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는 니카라과의 미스키토 원주민 부족들에게 전달되어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될 것”

(사)예총연, 제18회 춘계수련회 성료



새대한국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사장 유영섭 목사·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예총연)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가평 오송비전빌리지에서 제18회 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새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고전 15:31~34)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 번 각 오를 다졌다.

개회예배는 예총연 선교협회장 김순일 목

사의 사회, 회계 흥연의 목사의 기도, 회의록 서기 임순옥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회 및 연합회 임원 일동의 특송, 이사장 유영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유영섭 목사는 고전 15:31~34 말씀을 본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부서질 때 내 영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근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순일 목사의 격려사, 심판철 목사의 축사가 계속되었다. 예배는 상임회장 제갈덕구 목사의 헌금기도, 서기 박진명 목사의 광고, 교단가입증명서 전달식, 상임회장 김신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장웨신, 제2회 선교사대회 개최

통일선교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지평 넓혀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김현수 목사, 총무 김복래 목사)는 지난 5월 13일(토) 제2회 선교사대회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송석교회(성용구 목사 사무)에서 가졌다. 경천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통일선교를 주제로 1부 예배, 2부 통일선교비전선교, 3부 선교사 대회로 진행됐다.

경천노회장 성용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출 5:1-5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웨신대학노회장 허송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통일선교비전선교는 이영풍 전 임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통일선교영상 시청, 통일선교 소개 및 비전선교, 통일선교를 위한 합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 김복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선교사 대회는 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환영

사에 이어 4명의 발제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경천노회 부노회장 이정구 목사가 ‘통일선교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납사울노회 주경만 목사가 ‘탈북민 신앙과 통일목회사역’ △한꿈학교 김영미 교장이 ‘통일선교와 다음세대’ △웨신대학노회 탁군진 강도사(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회)가 ‘통일선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통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발제자 및 관련기관에 선교후원금을 전달하고 “웨신총회에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꿈을 잃지 말고 내외적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당대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여 내실 있게 한국 교회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해가자”라고 강조했다.



독거 어르신 위한 밥사랑잔치

장수사진 및 선물 전달, 따뜻한 위로 펼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는 지난 5월 10일(수) 미포구 대흥동 엘드리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기동 불능한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엔즈(회장 최애스터)와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한일)과 협력하여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해 ‘하버나일 밥사랑잔치’와 장

수사진 및 선물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사)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재원 장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아버지날을 맞아 사랑의 식사와 장수사진을 비롯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월드뷰티엔즈 회장(·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장) 최애스터 교수는 “이번 사랑의 장수사진과 건강이불선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취약한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분들께 K뷰티 소셜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사)국가조찬기도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박형근 전양선교사의 은혜의 찬양과 함께 엘드리노인대학 합창단의 특송으로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밥사랑잔치는 구호 장로(위원장 박단장)·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 마을)·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엔즈)과 신한대 대학생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어르신을 섬겼다.



등록접수



강단의 순서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행 13:20-23)

교회본질회복, 종교다원주의·차별금지법 반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5일 10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행 13:20-23)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이날 세계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안보와 핵폐기 평화정착, 감염병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무감각해진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72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편집자 주〉



의장 김병목 목사



임원배석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성가단의 찬양



선교사인사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한 인준



신임 지방회장 인준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설교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인사말
총회장 김병목 목사



축도
정책위 부위원장 김상웅 목사



총회 폐회기도
전임 총회장 이용주 목사



특별기도
작전 총회장 신재영 목사



대표기도
전임 경기북지방회장 한승수 목사



특별기도
김포지방 회장 이득상 목사



일본하나님의교회 이사장
축사 초차이기오시 목사



동역
강일성 목사



한금기도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



사회
총무 정진균 목사



광고
서기 임형순 목사



성경봉독
재무 백영자 목사

근속패



김기진 목사



정진균 목사



최형택 목사



유영주 목사



심혜원 목사



정기영 목사



유병일 목사



이동수 목사



최창수 목사



김영환 목사(대리수령)



야유회 갖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

광주신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신학교(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5월 15일(월) 야유회를 통해 단합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신학교 교수와 학우들 24명은 그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배우고 알아 누리다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에서 한 시간 반 거리, 강진에 있는 미량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로 점심 배를 채우고 가까이에 있는 가우도 찻집에서 학장 최정식 목사 시모가 제공한 여러가지 종류의 차와 팔빙수 그리고 디저트로 입을 즐기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우도 섬에 있는 출렁다리를 지나 4km나 되는 섬 해변로를 산책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귀가 중에는 역시 강진에 있는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와 박물관을 돌아보고 김경희 신학교 간사가 제공한 황칠 왕갈비탕을 먹고 헤어졌다. 거뜨날 때 주어진 영생 안에 있는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월례회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육준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육 목사는 요 15:14-17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

신 목적과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우광덕 목사의 헌금 기도, 사회자의 광고, 육준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서기 박태균 목사의 회원 점명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회계 전한배 목사의 재무·회계 보고 후 기타안전토의를 하고 전임회장 탁정신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지방회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개회설교

저녁집회설교



김병묵 목사
교단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일시 2023년 6월 19일(월)~6월 21일(수) 2박 3일

장소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마지리236-3)
☎ 010-7477-8018

대상 전국 여교역자국 | 참가비 1만 원

문의 실장 조영란 목사 (010-7477-8018)

계좌번호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시는 글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존경하는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을 사수하고자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주의 권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펜데믹이라는 상황에 놓여 그동안 만나뵙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교회의 시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얼굴을 대하고 모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전국 여교역자들이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4:9~12 말씀에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다시 모여 영육으로 새로워지길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교역자님들을 초청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주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1.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라
2.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3. 고난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2023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19일	20일	21일
05:00			
06:00		새벽예배 사회 : 김중애목사 기도 : 김정순목사 설교 : 탁정신목사	새벽예배 사회 : 최정희목사 기도 : 표현자목사 설교 : 한순남목사
07:00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자연과 함께... 정선 레일바이크	새벽예배 사회 : 안선자목사 기도 : 조은혜목사 설교 : 정부용목사
10:00			점심은 지부별로
11:00			
12:00			
13:00		점심식사	
14:00			
15:00	등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속으로 평창 600고지	
16:00	개회예배 사회: 조명희목사 기도: 김영준부총회장 설교: 김병묵 총회장		
17:00			
18:00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20:00	저녁집회 사회: 이복순목사 기도: 김경옥목사 설교: 신계영중경총회장	저녁집회 사회: 김찬애목사 기도: 황연선목사 설교: 백영자목사	
21:00	기도회 조명희목사	기도회 이복순목사인도	
22:00			



정혜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배부장



복자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실장



행사부장



상임부장



서울중앙지부회 지부장서울강남지부회 지부장



경기지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부회 지부장



경기남지부회 지부장



경기북지부회 지부장



일산지부회 지부장



대전지부회 지부장



충북지부회 지부장



예수시랑교회 정애스더 목사



순복음시랑교회 이현옥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배만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예수시랑교회 예정희 목사



늘봄복음교회 신종일 목사



초심교회 김희자 목사



늘봄안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부회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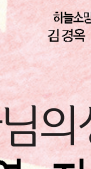
충주지부회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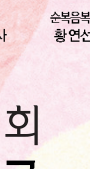
경남지부회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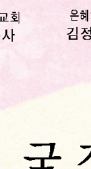
영남동지부회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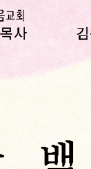
부산지부회 지부장



부산동지부회 지부장



광주지부회 지부장



호남지부회 지부장



은진지부회 지부장



예수시랑교회 한정숙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 최명애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익금교회 김순덕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공적개발원조 증액촉구 시민 청소년 행진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청계천—서대문역’

공적개발원조(ODA)증액촉구 시민 청소년 행진이 지난 5월 20일(토)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서경숙 국회의원, 서울시 오세훈 시장(영상)을 비롯 지역 목사와 교계, 정계, 각계 인사, 시민,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난한 나라를 돕는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행사로 홍보 영상을 비롯 오케스트라 연주, 난타 공연, 부채춤, 장구춤 공연 2부 국민의례, 존경받는 나라운동 대표 김진호 감독의 인사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인사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인사말(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영상), 서경숙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3부는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농업박물관 서대문역까지 모두가 함께 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진에서는 공적개발원조를 증액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가난한 나라를 열심히 돕는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존경받는나라만들기 국민운동본부대표 김진호 감독, 운영위원장 서경숙 목사는 2022년 2월 원로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단체로 지금은257명의 원로목사와 28명의 원로장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이 6.25전쟁 때 16개 국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지켰고 이제는 어려운 나라의 롤 모델이 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으므로 세계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동안에는 잘 살아보세가 국가목표였지만 이제는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자는 국가목표를 갖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금 한국 ODA는 10년째 0.16%다. OECD의 평균인 0.33%의 절반도 못미친다. 그런데 UN은 0.7%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 쓰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6개 나라에 불과하다. 한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려면 한편으로 경제도 크게 성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눔교육을 받고 이런 행진에 동참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는 이 행진은 국가가 예산을 논의하는 시점인 매년 5월에 청소년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매년 0.1%씩 높여서 10년 후에는 1%까지 올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가난한 나라를 돕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인터넷을 통해 가족세트전도 틀 처음 알게 되어 박영수 목사가 시무하는 평내순복음 교회에 찾아가서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이 가족세트전도는 그야말로 가족이 세트로 영혼 구원받는 전도라고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였듯이 이 가족세트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들을 모두, 가족이 세트로 구원받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지내다 신랑생활을 신실하게 하며 살았지만, 믿지 않는 집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제사를 아주 귀히 여기는 시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월급을아낌없이 용돈으로 드리고, 여행을 보내 드리고, 심지어 집까지 지어 드리는데 회전을 다 했습니다. 결국 저의 시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원에서 병상제례를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 임무는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부모님 자녀를 5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들은 평소에도 효자 효녀들이었으니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장례예배를 접례해 주신 목사님께 고마위는 했지만, 믿음은 없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에게는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가족세트전도훈련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저의 시대 형제들 가족이 세트로 전도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본산순복음교회에서 가족

세트 전도부흥회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마침 본산은 저의 시대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시동생 가족을 저녁 집회마다 초청해서 박영수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영접기도를 해서 시동생 가족이 세트로 전도되었습니다.

사실 항상 얼굴 보는 가족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의 남편 5형제가 부산 해운대로 가족여행을 가는 집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행 중에 주일이 있으니 이날에는 다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5형제가 모두 모여서 한 교회에서 주일에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시누이들에게 말씀을 전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시누이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 복음을 듣는 얼굴은 어원이어 같이 순수하게 듣고 영접 기도까지 포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족을 함께 지키고 가족이 다 세트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가족세트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왕시 이레교회 새벽전도왕 박리미 권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전 세계에 북한 핵, 핵전쟁 불안 야기

미래목회포럼 제19-3차 정기포럼, 북한주민 알권리 대북 전단활동 활성화되어야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5월 18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 홀에서 제19-3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포럼좌장 조희환 목사의 인도로 이성준 목사의 개회기도, 대표 이동규 목사의 인사말, 이예란 박사(자유통일문화원장)의 발제, 이용희 교수(가천대)의 발제2가 이어졌다.

이동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차원 보인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남과 북의 통일은 남북한의 관계도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린 문제다.”라고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교회가 점차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다”고 했다.

이목사는 “이 땅의 교회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열린 토론회의 장이 되길 소망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예란 박사는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평화통일을 갈망했고 평화통일을 위한 숭한 정치적 실험들을 해보았지만 북한의 김정정은 과 감여정 남매는 현재도 지속적인 무력도발 협박을 퍼부으며 각종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고 있다. 김정정은 의 핵개발과 핵실험 등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핵전쟁의 불안을 야기하게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인적 물질 손실이 없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북한 독재 왕조를 민주화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대북 전단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용희 교수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 땅에 쏠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통일이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성경은 핏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미국교회, 중국교회가 아닌 일본교회가 아닌 바로 남한교회와 해외 교포교회에 있다. 한국교회와 교포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 되고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통일선교 한국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함주어 말했다.

발제 후 패널로 나선 최이우 목사와 황덕영 목사는 “미래목회포럼은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정답을 제시할 것인가’에 주목하며 활동해오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포럼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본다”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래목회포럼이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 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 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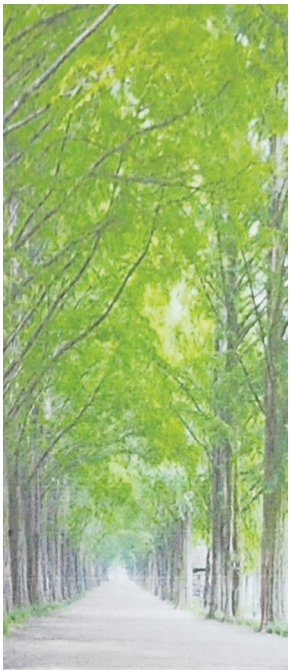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긴 세월의 나무처럼...

저 높고 푸른 나무
서로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 저 나무의 세월은
얼마나 되었을까?

내려주시는 햇살을 받고
깊은 뿌리 내리며
심기운 그곳에 불평없이
자리더니 단쟁이 재롱피라
내 몸 내주는 큰 나무 되었구나.

나뭇잎 터널 만들어
시원한 바람과 그늘.
그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모습
차·암 보기 좋다.



서로 만나 하나 되기 쉽잖은 인생.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덕분에
오랜 세월 지난 후 뒤돌아보니
주름진 얼굴 위에 주신 선물은
서로의 생각 읽어주는 마음이었네.

정실홍실 엮어가며 살아온 세월.
깨어질 때 아픔 감사로 받고 보니
강산이 네 번 바뀌고 있는 지금.
'인내는 기다림이고 소망을 이룬단다' (롬 5:3~4)
이곳을 지나시며 주님 위로 하신다.

40년이되어가는 나무 그늘 밑을 거닐다 하늘을 보니
양옆 나무는 우람한 나무되어 나뭇잎터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오랜세월이 지난 후에야 맞닿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부부의 세월과 같다는 생각이 스쳐
나무를 통해 주신 깨달음을 글로 남겨본다.

교단과 교회의 부흥 위해 헌신 다짐

전국사모연합회

제11차 정기총회 임원진은 일부 개선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신명희 사모)는 지난 5월 15일(월)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에서 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유임하기로 한 편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 개최에 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후 곧바로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전국사모연합회 제11

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회무를 처리한 후 일부 임원을 선임했다.

고문 김양숙 사모, 최혜선 사모,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처경애 사모, 신동신 사모, 차추련 사모, 윤금자 사모, 직전회장·감사 김귀순 사모, 1부회장 이을순 사모,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총무 김세희 사모, 부총무 조은숙 사모, 서기 나평숙 사모, 부서기 김길순 사모, 재무 조동숙 사모, 부회계 이순선 사모



경기남지방회

창대교회 목사 임직 감사예배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5월 20일(토) 창대교회(담임 박서현 전도사)에서 목사 임직 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회계 김진태 목사의 찬양 인도 후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서경호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서기 강신홍 목사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와 설나나 전도사 외 4명의 중창단의 특송 후에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신분을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오늘 은 특별히 귀한 여종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환난이나 풍랑이 불면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심을 믿고, 충성된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회장 서성영 목사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 2부 순서로 임직자 서약 및 공포 후에 3부 순서로 전임회장 김기인, 김남수, 김영관 목사의 축사와 유병서 장로의 색소폰 연주 후에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의 권면에 이어 박서현 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에 직전회장 박흥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후 창대교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사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종식된 가운데 제72차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이롭게 회원들이 다시 만나게 됨에 박한 감격을 느끼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가을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10월 총회로 3년 만에 만나 코로나로 합쳐진 시간동안인원으로 교단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쉬게 하고 임원을 새로 개선했다. 이번 제72차 총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0-23)는 주제로 모여 임원개선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 끝까지의 복음전도를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려는 세력들을 단호히 대적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을 진리와 행동으로 막아내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화, 상황윤리의 거센 파도와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총회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성경중심의 교단으로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전 총회원들이 하나 되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72차 총회에 보내주시 총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총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총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북핵 위기 극복 이 땅의 평화 지켜내야

반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평창의 이승복 어린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다.

김정은은 최근 '남한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했다. 적과 동침하는 자는 적이다. 적과 동침하는 자도 적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도 적이다. 나라와 민족의 정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적의 선동에 동침하는 자도 적이다. 김정은은 남한을 적이라면서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퇴임직전까지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자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22년 한 해엔 최대인 70발의 탄도 미사일로 도발했다. 12월 31일에는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다. 시도 때도 없이 핵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관계 최대 실책이라는 '남북연락사무소'도 자기를 상대로 폭파했다.

그러자 지금 평壤 대화의 한 중앙에 있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뭐라 했을까?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그러면서 눈에 나가 모를 심으면서 북한의 노동기를 불렀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적은 남한이라는 데 우리의 적은? 국민 의함과 민주당에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 국민의힘의 대답은 민주당의 대답은? 문제인 정권 때의 일이다. 야당의원이 당시의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장관에게 물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인가? 정경두 국방장관은 8초 동안 답을 하지 못하고 몽그적했다. 그때 TV 카메라로 잡힌 그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장관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쟁그러 똘을 것이다. 당시는 그랬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시간들을 용케도 살아왔다.

지금 한국의 할 일이 너무 많고 막중하다. 주변국과 최대한 손잡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므로 위기를 헤쳐가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북핵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경제, 문화, 사회의 지도적 변역을 지속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할 때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시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대하 6:30)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주님의은혜교회 조미숙 목사 임직식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5월 20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서로 396번지 벽산아파트복합상가 109동 지하28호에 위치한 주님의은혜교회(담임 조미숙 전도사)에서 조미숙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규리 목사(순복음펜셀교회 담임)의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예배 전 찬양에 이어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진숙 목사(오병이어교회 담임)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방은혜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진리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계3:8-13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의 원천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

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원천이다. 둘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원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충만받아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임직식은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집례로 조미숙 전도사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이어져 서약 및 지방회장인 안수위원 김덕영 목사(진리교회), 지방회 부회장 방은혜 목사(임마누엘교회), 전임회장 임춘동 목사(성화교회 담임), 전임회장 김상기 목사(서림교회 담임)의 안수기도와 성의 착용 및 공포 후에 임직증서 및 임직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김상기 목사의 축사와 임춘동 목사의 권면, 지방회 회계 김종숙 목사(회복교회 담임)의 헌금기도와 김덕영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주님의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